

■ [2020년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심사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0년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_아동문학 부문
- 회의일시 : 2020. 10. 28.(수) 10:30
- 회의장소 : 나주 본관 소회의실(ZOOM 화상회의)
- 심사위원 : 강숙인, 김아정, 김준현, 손동연, 오세란, 임정연(6명)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아동문학 부문은 코비드-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아쉽게도 대학로에 모두 모여 잔치를 치를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온라인으로 247편, 우편으로 18편이 응모되는 등 총 265편이 접수되어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잔치가 되었다. 심사위원들도 많은 수의 원고를 읽느라 힘들기는 했지만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귀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접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

추첨을 통해 채택된 올해의 글제는 '달리기' '머리카락' '영화' '이발소 그림'이었다. 이 글감을 소재로 창작된 예심 작품들 중에는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았으며 온라인이라고는 해도, 짧은 시간 내에 참신한 발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솜씨도 놀라웠다. 한편 글제에서 누구나 떠올릴 법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아이디어나 이야기 전개를 펼친 작품 혹은 아직 문장이 무르익지 못한 작품도 종종 발견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총 265편의 응모작 중에 본심에 올라 온 작품은 14편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순위를 다툰 작품은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동일한 수의 추천을 받은 최영희님의 「백발의 기수」와 안보라님의 「친구까지 삼십 센티」였다. 두 작품 모두 '머리카락'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백발의 기수」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외모로 콤플렉스를 가진 소년이 춤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성장의 이야기라면, 「친구까지 삼십 센티」는 머리카락이 인연이 되어 같은 반 친구와 우정을 나누게 되는 여자 어린이들의 이야기였다. 한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춤의 묘사가 탁월했고 다른 작품은 찬찬히 친구의 마음을 보듬어가는 심리 묘사가 돋보였다. 글제만 같을 뿐 주인공의 성별도, 읽은 후의 느낌도, 글에서 느껴지는 숨결도 달랐지만 두 작품 모두 탁월한 작품이라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팽팽한 심사 끝에 심사위원들은 두 작품을 공동 장원으로 선정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어쩌면 예심의 원고 수가 늘어난 만큼 뛰어난 작품도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 작품 이외에도 장려상과 입선을 받은 작품도 오래 기억에 남을 작품이 많았다. 특별한 주인공들을 만나게 해준 장려상과 입선 수상자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인사를 보내 드린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총 10편의 수상 작품 중에 동화가 8편인데 비하여 동시는 2편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동시가 쓰기 어렵다는 뜻이기에 선택된 두 편의 동시가 더욱 귀하다. 더불어 동시 창작에 매진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삼 경의와 존경을 보낸다.

이번 심사의 글제에는 '달리기'가 들어 있어 달리기하는 동시와 동화를 많이 읽었다. 이야기 속에는 달리기에서 이기고 싶은 어린이도, 이기려는 찰나에 넘어진 친구를 돌아보는 어린이도, 피곤한 인생 달리를 하는 어른도 있었다. 마로니에여성백일장도 올해의 달리가 끝난 셈이니, 이제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박수를 칠 때이다. 이긴 사람에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운동화 끈을 조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달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